

# 學齡期 兒童의 衣服行動과 心理的 特性 및 어머니의 養育態度와의 關係

## Clothing Behavior Related to Child-Rearing Attitudes and Selected Psychological Variabl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織物學科

大學院生 邊 廷 恩

副 教 授 李 明 姬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Jeang Eun Byun

Associate Prof; Myounghee Lee

### <目 次>

I. 序 論

II. 理論的 背景

III. 研究方法

IV. 結果 및 論議

V.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clothing behavior with such psychological variables as self-esteem and impulsiveness, to disc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lothing behavior and their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sex and their mothers having job.

Questionnaires for clothing behavior and child-rearing attitudes were chosen from ones which were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items were selected on the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easurement of impulsiveness, a portion of "Personality Inventory" by Beommo Chung was used, while Robinson and Shaver's self-esteem scale was adopted for measurement of self-esteem.

Clothing behavior was composed of 6 variables: clothing interest,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management, clothing sex-role, clothing comfort, and clothing independence.

Samples were 380 boys and girls (4th, 5th, 6th grade)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elf-esteem had positive relations with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management, and clothing sex-role. Girls who had higher self-esteem were less interested in traditional sex-role attitudes in clothing. Boys who had higher self-esteem were higher in clothing independence
2. Those who had higher impulsiveness were higher in clothing interest, but lower in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management, and clothing independence.
3. Loving and receptive child-rearing attitude had positive relations with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management, but a negative relation with clothing sex-role. When mothers had higher loving and receptive child-rearing attitude, their sons had higher traditional attitude in clothing sex-role. Democratic and self-regulating child-rearing attitude had no relation with clothing behavior.
4. To predict clothing satisfaction, 4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impulsiveness, mother's loving and receptive child-rearing attitude, and mother's democratic and self-regulating child-rearing attitude) were select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our variables was 15%. Clothing satisfaction was most influenced by self-esteem, and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5. Clothing interest and clothing management were higher with the girls than with the boys, while clothing comfort was higher with the boys.
6. When children's mothers had a job, the children tended to have higher liberal attitudes in clothing sex-role.

## I. 序 論

學齡期란 6세부터 靑少年 前까지의 시기, 즉 국민 학교 시기를 이르는데 이 시기의 兒童은 사회적·도덕적 발달이 현저하여 自己의 복장이나 청결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衣服은 兒童의 사회적·도덕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Hurlock<sup>1)</sup>은 兒童은 衣服의 상징성을 인식하며 신체적 매력이 사회적 승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衣服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어 選好衣服着用時 情緒安定과 自我尊重에 높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實證的 研究<sup>2)</sup>에서 自我尊重感이 높은 兒童

은 의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衣服 清潔에 관심을 가지며 衣服 着用時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입으려는 自主性이 있었다. 또한 衝動性이 높은 兒童은 衣服 디자인이나 色 선택에서 활동적인 스타일이나 暖色을 選好하는 경향을 보였다.<sup>3)</sup> 이와같이 自我概念이나 性格特性에 따라 兒童이 衣服行動에 差異를 보이는 것은 兒童은 衣服을 그들 자신의 思考나 行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兒童의 性格과 行動 발달에는 衣服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친구, 교사, 父母의 養育狀態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養育態度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先行研究<sup>4)</sup>에서 受容性이 높은 父母의 態度는 兒童

에게 높은 自我概念을 갖게 한다고 하였고, 어머니의 養育態度는 兒童의 性格形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養育態度가 性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衣服行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兒童의 衣服行動과 어머니의 養育態度와의 관계를 밝힌 研究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어머니의 養育態度에 따른 兒童의 衣服行動의 差異를 調査하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本 研究에서는 국민학교 4, 5, 6學年の 兒童을 대상으로 하여 心理的 特性 및 어머니의 養育態度와 兒童의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調査하고자 한다.

兒童의 衣服行動變因으로 興味性, 滿足度, 管理性, 性役割, 便易性, 自立性의 6개 變因을 선정하였다.

心理的 變因으로는 自我尊重感과 衝動性을, 어머니의 養育態度는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와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의 두 측면을 調査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국민학교 4, 5, 6學年 兒童을 대상으로 自我尊重感 및 衝動性과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學齡期 兒童이 衣服을 통해 올 바른 心理的 狀態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머니의 養育態度와 子女의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調査함으로써 子女養育時에 兒童의 衣服行動에 注意를 기울여 적합한 衣服行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本 研究의 구체적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衣服行動水準에 대하여 性別 및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른 差異를 밝힌다.
2. 自我尊重感 및 衝動性과 衣服行動間의 關係를 규명한다.
3. 어머니의 養育態度와 衣服行動間의 關係를 調査한다.
4. 衣服 滿足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自我尊重感, 衝動性, 養育態度의 영향력을 調査한다.

## II. 理論的 背景

學齡期 兒童과 衣服行動 : 學齡期는 6세부터 靑少

年期 前까지의 시기, 즉 12세까지의 國民學校 시기를 이른다. 이 시기는 가정, 친구, 학교생활의 상호영향으로 성격발달이 뚜렷해지며 사회적·도덕적 발달은 자연적으로 자기의 服裝이나 清潔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친구들과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 남자다운 또는 여자다운 모습을 갖게 한다.<sup>5)</sup>

Hurlock<sup>6)</sup>은 兒童은 同性과의 놀이에 대한 興味가 증가하면서 외양상의 관심도 생기고 衣服에 대한 興味도 점차적으로 생기며, 衣服이 欲求를 만족시켜 줄수록 衣服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다고 하였고, 劉永美<sup>7)</sup>, 高銀基<sup>8)</sup>는 女兒가 男兒보다 衣服興味性이 높다고 하였다.

滿足스럽지 못한 衣服은 心理的 결핍감을 일으켜 自信感을 잃게하고 行動에도 反映되어 社會參與度를 낮아지게 하는데,<sup>9)</sup>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兒童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兒童보다 衣服滿足도가 낮았으며 社會性이 있고 동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兒童일수록 자신의 衣服에 滿足하는 편이었다.<sup>10)</sup>

衣服管理性에 대하여 Gesell과 Ilg<sup>11)</sup>은 年齡段階別 研究에서 대다수의 兒童은 衣服의 깨끗함이나 정돈에는 관심이 없고 衣服管理에 不注意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管理性은 性別에 따른 차이를 보여 女兒가 男兒보다 管理性이 높았으며<sup>12)</sup> 도시 兒童이 농촌 兒童보다 衣服管理 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또한 朴玉蓮<sup>14)</sup>은 女兒의 경우 사려성이 높은 兒童이 신중하고 이론적인 性格에 따라 管理性이 높다고 하였다.

兒童은 衣服을 통해 性에 다른 差異를 알게 되며 특히 學齡期 兒童은 동료 집단에 대한 일치감 때문에 衣服이 자기 性에 적합하게 되기를 원한다.<sup>15)</sup> 姜恩淑<sup>16)</sup>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兒童은 性에 적합한 옷차림을 원하고 있었으며 농촌이 도시보다 하층이 중층 및 상층에 비하여 좀더 높은 보수성을 나타냈다.

衣服의 便易性은 兒童에게 특히 중요시 되는데 學齡期의 兒童은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며 운동에 관심이 증가하므로 운동에 방해가 되는 옷을 매우 싫어하며 특히 10~12세의 男兒들은 꼭끼는 옷, 뻣뻣한 질감이나 무거운 느낌의 옷을 싫어한다.<sup>17)</sup> 朴貞愛<sup>18)</sup>의 연구에서도 兒童은 멋있는 옷이라도 불편하면 입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朴贊富<sup>19)</sup>는 人性特性과의 관계에서 活動性·支配性·社會性이 높을수록 衣服 便易性을 중요시한다고 하였고, 金榮玉<sup>20)</sup>은 女兒보다 男兒가 衣服의 편안함에 더 중점 둔다고 하였다.

兒童은 신체적 구조가 미숙하므로 衣服이 혼자 입기 쉬운 形으로 디자인 됨으로써 兒童의 自立性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Read<sup>21)</sup>는 兒童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年齡에 스스로 입도록 해서 獨立性과 自肯心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朴玉蓮<sup>22)</sup>의 연구에서 男兒의 경우 지배성이 강한 사람은 衣服 自立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劉永美<sup>23)</sup>는 衣服滿足도가 높은 兒童이 衣服의 管理性과 自立性이 높다고 하였다.

**自我尊重感과 衣服** : 自我尊重感은 性格의 기초가 되는 心理的 特質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평가적 태도를 의미한다.<sup>24)</sup> Bee<sup>25)</sup>는 自我尊重感의 높고 낮음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정도에 있다고 하였고, 學齡期 兒童의 自我尊重感은 그의 家庭內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어 어린이를 책임감있는 개인으로 대우하는 家庭의 어린이가 自我尊重感이 높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sup>26)</sup>에서 兒童의 自我尊重感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自我尊重感,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父母의 養育態度, 어머니의 職業有無 등으로 나타났다. Ryan<sup>27)</sup>에 의하면 衣服은 신체적 自我概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衣服이 自我尊重感과 타인으로부터의 受容을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高銀基<sup>28)</sup>의 연구에서 男女 兒童은 모두 自我尊重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청결 및 管理에 관심이 많았고 또래 集團과 비슷한 옷은 잘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男兒는 自我尊重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안락성과 자립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自我尊重感은 兒童에게도 衣服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衝動性과 衣服** : 衝動性은 思考나 行動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받기를 싫어하고 自制力이 약하여 흥분을 잘하는 性格 特性을 의미한다.<sup>29)</sup>

衣服과 衝動性의 관련 연구를 보면 李仁子<sup>30)</sup>의 연구에서는 衝動性이 높은 사람은 동색배색보다 보색배색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고 色을 다양하게 선택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색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衣服 디자인에 있어서도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보다는 개성을 특히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취학적 아동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衣服디자인 선호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신혜봉<sup>31)</sup>의 연구결과에서 충동성 集團은 빨강계열(난색), 대비 배색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무겁고 뽀뽀한 질감을 좋아하며, 꽃문양, 줄문양, 큰문양을 좋아하며, 활동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衝動性은 性格特性 중에서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養育態度** : 養育態度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兒童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行動을 말하며, 부모의 養育態度에 따른 子女의 인성과 행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태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Schaefer<sup>32)</sup>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① 자율-통제, ② 애정-적대로 나누었고, Becker<sup>33)</sup>는 ① 온정-냉정, ② 제약-허용, ③ 안달-태평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車載浩, 李芸英<sup>34)</sup>이 요인분석을 통해 ① 온정-냉정, ② 과보호-방임, ③ 허용-제약, ④ 안달-태평의 4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다.

부모의 養育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養育態度는 부모의 인성,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직업유무, 자녀수, 자녀의 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sup>35)</sup> 또한 어머니의 養育態度 및 性格을 측정하여 이를 兒童의 行動 또는 性格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다. Mussen<sup>36)</sup>의 연구에서는 좀 더 허용적 養育態度를 지닌 父母들의 子女가 더 높은 자아개념을 지녔고 양쪽 父母가 모두 냉담하고 거부적인 兒童들에 비해 한쪽 父母라도 온정과 수용을 나타낸 兒童들이 더 높은 자아개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승, 오성심<sup>37)</sup>의 연구에서도 兒童이 父母의 行動을 愛情的이라고 생각할 때 兒童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韓宗惠<sup>38)</sup>의 연구 결과에서는 父母의 養育

態度가 애정·수용적일수록 아들은 性格特性중 지배성·사려성·사회성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같이 어머니의 養育態度는 兒童의 性格 및 自我概念에 밀접한 영향을 주므로 母의 養育態度는 自我概念과 관련이 있는 兒童의 衣服行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研究方法

#### 1. 測定道具

**衣服行動 尺度** : 兒童의 衣服行動 變因은 信賴度 및 受當度가 입증된 先行研究<sup>39)</sup>의 測定道具를 사용하였다. 衣服行動은 6개의 下位領域으로 구성되었으며 各 變因에 따른 問項은 3段階에 의한 總合平定法 尺度를 사용하였다. 衣服興味성은 衣服에 대한 關心, 衣服選擇 및 衣服着用에 관한 興味를 나타내는 問項으로 10問項을 선정하였으며 10問項의  $\alpha$ 係數는 0.74였다. 衣服滿足度는 衣服의 모양, 수량, 용도 등에 대한 滿足도를 의미하는 10問項을 선정하였으며 10問項의  $\alpha$ 係數는 0.70이었다. 衣服管理성은 衣服의 整理 및 세탁의 必要性 등을 認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問項으로 8問項을 선정하였으며 8問項의  $\alpha$ 係數는 0.68이었다. 衣服性役割은 衣服의 형태나 색상에서 男子다운 衣服, 女子다운 衣服으로 구분하려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개방적, 보수적 態度로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性役割 態度를 意味한다. 衣服性役割 問項은 총 11問項을 선정하였으며  $\alpha$ 係數는 0.63이었다. 衣服便易성은 衣服이 身體 活動을 방해하지 않으며 着用時에 입고 벗기 쉽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옷을 입으려는 態度를 意味하며 5問項을 선정하였고  $\alpha$ 係數는 0.60이었다. 衣服自立성은 衣服行動 전반에 걸쳐 자기 스스로 行動하는 것으로 等교시의 衣服選擇 또는 氣溫에 따른 속옷 着用 등에서 自主성이 있음을 意味하는 問項으로 5問項을 선정하였으며  $\alpha$ 계수는 0.62였다.

**自我尊重感 尺度** : 兒童의 自我尊重感을 測定하기 위해 Robinson & Shaver의 自我尊重感 測定道具에서 高銀基<sup>40)</sup>가 翻案하여 사용한 25問項을 사용하였

다. 各, 問項은 眞爲型으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自我尊重感이 높은 것을 意味한다.

**行動性 尺度** : 行動性 檢査를 위해 鄭範謨<sup>41)</sup>의 표준화된 「국민학교용 人性檢査」의 衝動性 測定 問項中 23問項을 사용하였다. 各 問項은 眞爲型으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0~2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衝動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養育態度 尺度** : 本 研究에서는 어머니의 養育態度를 2차원으로 나누는 韓宗惠<sup>42)</sup>의 養育態度 檢査를 사용하였는데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와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로 구분된다.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로 구분된다.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는 子女를 한 個人으로 보아 의견을 尊重하며 子女가 生活과 行動을 스스로 생각, 처리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態度를 調査하는 問項으로 총 12問項으로 되었다.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는 子女를 따스히 보살피고 보호하는 態度를 말하며, 子女에 대해 헌신적이고 子女와 活動에 함께 참여하며 용기를 주고 子女의 좋은 行動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態度를 調査하는 問項으로 총 12問項을 사용하였다. 信賴度 檢證을 위하여 Cronbach의  $\alpha$ 信賴度 係數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의 2問項을 제외하고 총 22問項을 사용하였다. 최종 信賴度 係數는 각각 0.73, 0.75였다. 各 問項은 Likert型의 5段階 評定 尺度로 되어있고 各 變因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民主-自律적,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本 研究의 標集對象은 群集의 標集(cluster sampling)에 의하여 抽出하였는데, 서울 시내 3개 國民學校에서 4, 5, 6學年 男女兒童을 각각 한 반씩 選定하였다. 質問紙는 학교에 배부하여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집으로 가져가서 兒童과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게 하였다.

調査期間은 1988年 6月 末부터 7月 中旬까지였으며 총 47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質問紙中, 기입이 불완전한 90부를 제외하고 380부를 資料分析에 사용하

였다. 標集對象의 學年 및 性別에 따른 分布는 표 1과 같다.

### 3. 資料分析

蒐集된 資料는 SPSS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電算處理되었다. 資料分析은 平均, 標準偏差,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고 t檢證, 變量分析 및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 IV. 結果 및 論議

### 1. 性別 및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른 衣服行動의 差異

性別에 따른 衣服行動의 差異를 t檢證으로 分析한 結果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性別에 따라 유의적인 差異를 보인 衣服行動 變因은 興味性, 管理性, 便易性으로 모두 1% 有意水準에서 差異를 보였다. 衣服 興味성과 管理성은 女兒가 男兒보다 높게 나타나 女兒가 男兒보다 衣服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衣服 管理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結果는 女兒가 男兒보다 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여 매력적인 옷차림이나 단정함에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劉永美, 高銀基의 研究結果와 일치한다.

便易성은 男兒가 女兒보다 높은 水準을 보여 男兒는 女兒보다 衣服의 便易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 즉 男兒는 女兒보다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의 정도가 많으므로 衣服에서도 좀 더 便易성을 중요시 한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른 衣服行動의 差異를 t檢證으로 分析한 結果는 <표 3>과 같으며 衣服 性役割은 母의 職業有無에 따라 意味있는 差異를 보였다. 즉 職業을 가진 어머니의 子女가 職業을 가지지 않은 어머니의 子女보다 衣服에서 개방적인 性役割 態度를 보였다. 이것은 職業을 가진 어머니가 職業을 갖지 않은 어머니보다 일반 사회적 態度에서 女性의 役割에 보다 개방적인 態度를 지님으로 兒童의 衣服 性役割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李明姬<sup>43)</sup>의 研究에서도 어머니가 개방적인 性役割 態度를 지니면 그

<표 1> 兒童의 性別 및 學年別 分布

學年	男		女		計	
	N	%	N	%	N	%
4	61	16.1	63	16.6	124	32.6
5	63	16.6	76	20.0	139	36.6
6	59	15.5	58	15.3	117	30.8
計	183	48.2	197	51.8	380	100.0

<표 2> 性別에 따른 衣服行動의 差異

衣服行動	男(N=183)		女(N=197)		t
	M	S.D	M	S.D	
興味性	18.49	3.74	22.41	4.12	-9.67**
滿足度	25.14	3.13	24.90	3.44	0.69
管理性	16.64	3.46	17.95	3.35	-3.75**
性役割	20.32	3.91	21.05	4.09	-1.77
便易性	14.05	2.22	13.28	2.51	3.14**
自立性	11.46	2.42	11.24	2.55	0.86

\*\*p<0.01

<표 3>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른 兒童의 衣服行動의 差異

衣服行動	有(N=117)		無(N=263)		t
	M	S.D	M	S.D	
興味性	20.67	4.09	20.45	4.53	0.44
滿足度	24.73	3.49	25.14	3.20	-1.14
管理性	17.10	3.76	17.42	3.32	-0.83
性役割	21.33	4.33	20.42	3.84	2.06*
便易性	13.88	2.18	13.55	2.49	1.23
自立性	11.32	2.59	11.35	2.45	-0.10

\*\*p<0.05

의 子女도 비교적 衣服의 男女 구별에 관심이 낮았다 는 점에서 本 研究과 유사한 脈絡을 나타냈다.

### 2. 衣服行動과 心理的 特性 및 어머니의 養育態度와의 關係

自我尊重感 및 衝動성과 衣服行動間의 關係를 積率相關係數로 分析한 結果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自我尊重感和 意味있게 相關을 보인 衣

〈표 4〉 自我尊重感 및 衝動性과 衣服行動의 相關關係

心理의 特性		衣服行動	興味性	滿足度	管理性	性役割	便易性	自立性
自我尊重感	全體		-0.07	0.37**	0.28**	0.11*	0.06	0.08
	男		-0.09	0.37**	0.31**	0.09	0.07	0.14*
	女		-0.08	0.37**	0.26**	0.12*	0.06	0.02
衝動性	全體		0.17**	-0.21**	-0.38**	-0.06	-0.08	-0.09*
	男		0.19**	-0.20**	-0.38**	-0.26**	-0.10	-0.08
	女		0.29**	-0.22**	-0.36**	0.14*	-0.10	-0.11

\*p&lt;0.05 \*\*p&lt;0.01

〈표 5〉 어머니의 養育態度와 兒童의 衣服行動과의 相關關係

養育態度		衣服行動	興味性	滿足度	管理性	性役割	便易性	自立性
民主-自律의인 養育態度	全體		-0.05	-0.02	-0.07	0.04	-0.03	0.02
	男		-0.06	0.05	-0.02	-0.05	0.03	-0.05
	女		-0.04	-0.07	-0.11	0.12	-0.08	0.07
愛情-受容의인 養育態度	全體		0.07	0.13**	0.09*	-0.09*	0.02	0.00
	男		0.02	0.19**	0.15*	-0.14*	0.06	0.13*
	女		0.19**	0.07	0.07*	-0.04	-0.04	-0.11

\*p&lt;0.05 \*\*p&lt;0.01

服行動은 滿足度( $r=0.37$ ), 管理性( $r=0.28$ ), 性役割( $r=0.11$ )로서 모두 正的인 相關을 보였다. 男女別로 보면 自我尊重感은 衣服 性役割 態도와 女兒만 5% 有意水準에서 正的인 相關關係가 있었고 自我尊重感和 自立性의 關係에서는 전체적으로 意味있는 相關關係가 없었으나 男兒의 경우만 5% 수준에서 正的인 相關을 보였다. 즉 自我尊重감이 높은 兒童일수록 衣服 滿足도와 管理性を 중요시 하고 衣服 性役割 態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女兒의 경우 自我尊重감이 높으면 개방적 性役割 態도를 지녔고 男兒의 경우 自立性を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自我尊重감이 높을수록 衣服의 管理性を 중요시 한다는 高銀基의 研究 結果와 일치한다. 또한 自我尊重감이 높은 女兒는 더욱 진취적인 현대 女性의 態度를 受容하여 衣服에서도 활동적인 男子다운 복장을 受容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自我尊重감이 높을수록 男兒의 衣服 自立性이 높은 것은 自我尊重감이 높은

남아는 스스로 옷을 선택하고 혼자 입기 쉬운 옷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子肯心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衝動性和 意味있는 相關을 보인 衣服行動은 네 가지 變因으로서 興味性과는 正的 相關을 보였으며( $r=0.17$ ), 滿足度, 管理性, 自立性과는 負的 相關을 보였다( $r=-0.21, -0.38, -0.09$ ). 衝動性和 性役割의 關係는 전체적으로는 意味있는 相關이 없었으나 男兒는 1% 수준에서 負的 相關關係를 보여고 女兒는 5% 수준에서 正的 相關을 나타냈다. 衝動性이 높을수록 衣服에 흥미가 있는 것은 衝動的인 兒童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반면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돌보이는 衣服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衝動的인 兒童은 단순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침착성을 요구하는 衣服의 管理에 부주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衣服水準은 높으나 性格特性上 衣服에 대한 管理를 잘 하지 못하므로 滿足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衝動性과 性役割의 관계가 男女에 따라 달리 나타났음은 매우 흥미로우며 男兒는 衝動性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態度를 지니 自己 性에 맞는 衣服을 입고자 하며, 女兒는 衝動性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態度를 지니 男女구별이 없는 衣服을 受容하였다.

어머니의 教育態도와 衣服行動 變因間의 關係를 積率相關係數로 分析한 結果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兒童의 衣服行動은 民主-自律的 養育態도와 意味있는 相關을 보이지 않았으나 愛情-受容的 養育態도와는 意味있는 關係를 보였다. 愛情-受容的 養育態도와 滿足度 및 管理性은 正的 相關을 보였으며 ( $r=0.13$ ,  $r=0.09$ ) 性役割과는 負的 相關을 보였다( $r=-0.09$ ). 어머니의 養育態도가 愛情-受容的일수록 兒童은 兒童尊重感이 높고 肯定的인 性格이 되므로 衣服 滿足도와 管理性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男女別로 보면, 女兒의 경우만 興味性은 愛情-受容的 態도와 1% 水準에서 意味있는 相關을 보였다. 愛情-受容的인 養育態도는 男兒의 경우에만 滿足度 및 管理性과 正的 相關을 보였고 性役割과는 負的 相關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愛情 受容的 養育態도를 보일수록 兒童의 衣服 滿足도와 管理性은 높고 性役割 態度는 보수적이었다. 특히 女兒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養育態도가 興味性 變因과의 相關을 보인 것은 일상 생활에서 男兒보다 女兒가 衣服의 비중이 크고, 愛情的인 態度를 지닌 어머니가 女兒에게 衣服을 통한 외모에 관심을 더 두게 되므로 女兒의 衣服 興味性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6> 衣服 滿足度の 多重回歸分析

獨立變因	B	Beta	t
衝動性	-0.11	-0.12	-2.398*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	0.04	0.06	1.26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	-0.02	-0.03	-0.70
自我尊重感	0.27	0.33	6.50**

Constant = 21.55,  $R^2=0.15$ ,  $F=17.03^{**}$

\* $p<0.05$  \*\* $p<0.01$

衣服 滿足度에 영향을 주는 變因으로서 衝動性, 愛情-受容的 養育態度, 民主-自律的 養育態度, 自我尊重感의 4變因을 선택하여 多重回歸分析을 하였으며 그 結果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4개 獨立變因에 의한 衣服 滿足度の 설명력은 15%였으며 母의 養育態度 2變因은 有意인 영향력이 없었다. 自我尊重感의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衣服 滿足도는 0.27점 증가하며, 衝動性이 1점 증가할수록 衣服 滿足도는 0.11점 감소하였다. Beta값의 순서를 보면 自我尊重感이 衝動性보다 더 衣服 滿足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편이었다. 즉 本研究에서 衣服 滿足度の 가장 큰 예측 변인은 自我尊重感이었다.

## V. 結 論

本 研究의 目的은 國民學校 4, 5, 6學年의 兒童을 對象으로하여 性別과 母의 職業有無에 따른 衣服行動의 差異를 밝히고, 自我尊重感, 衝動性 및 母의 養育態도와 衣服行動間의 關係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衣服行動 변인으로는 興味性, 滿足度, 管理性, 性役割, 便易性, 自立性을 선정하였다.

本 研究에서 밝혀진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性別에 따라 差異를 보인 衣服行動은 興味性, 管理性, 便易性이었으며 女兒가 男兒보다 興味性, 管理性이 높았고, 便易性은 男兒가 女兒보다 높았다.
2. 母의 職業有無에 따라 差異를 보인 衣服行動은 性役割 態度였으며 어머니가 職業을 가진 兒童이 職業을 갖지 않은 경우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男女구별이 없는 衣服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3. 自我尊重感과 衣服行動間의 關係에서 意味있는 相關을 보인 衣服行動은 滿足度, 管理性, 性役割로 모두 正的인 相關이 있었다. 男女別로 보면 女兒는 自我尊重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性的 구별에 관심이 낮은 편이었고 男兒는 自我尊重感이 높을수록 衣服의 自立性이 높았다.
4. 衝動性과 意味있는 相關을 보인 衣服行動은 興味性, 滿足度, 管理性, 自立性이었다. 衝動性은 興味性과 正的인 相關이 있었고, 滿足度, 管理性, 自立性



과는 負的인 相關이 있었다. 男女別로 보면 衝動性과 性役割은 全體의 으로는 相關이 없었으나 男兒에게는 負的인 相關, 女兒에게는 正的인 相關이 있었다.

5. 어머니의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는 兒童의 衣服行動과 相關이 없었다. 어머니의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는 衣服의 滿足度, 管理性과 正的인 相關이 있었고 衣服의 性役割 態度와는 負的인 相關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가 높을수록 兒童은 자기 性에 맞는 衣服을 입고자 하였다. 男女別로 보면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는 女兒의 경우 興味性과 男兒의 경우 自立性과 正的인 相關을 나타냈다.

6. 自我尊重感, 衝動性, 어머니의 愛情-受容的인 養育態度, 民主-自律的인 養育態度의 4變因은 동시에 衣服 滿足度에 대해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 意味있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自我尊重感과 衝動性이었다.

以上的 結果를 종합해 볼때 學齡期 兒童은 性別, 母의 職業有無 등의 人口統計學的인 變因에 따라 衣服行動에 差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衣服行動은 兒童의 自我尊重感, 衝動性 등 心理의 特性과 相關이 있었으며 어머니가 愛情 受容的인 態度로 자녀를 養育할수록 衣服에 대해 滿足感을 느끼며 衣服의 管理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좀 더 愛情있는 態度로 주의를 기울여 兒童의 衣服에 대한 關心이나 管理 또는 자주적인 衣服行動 程度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지도함으로써 兒童의 健全한 性格形成과 衣服行動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E.B. Hurlock, *Child Development*, Tokyo: McGraw-Hill Kogakusha, 1978, p. 537.
2. 高銀期, "學齡期 兒童의 衣服行動과 自我尊重感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1986, p. 27.
3. 신혜봉, "취학전 아동의 의복디자인 선호성과 사려성-충동성 성향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 51.
4. 雲賢仙, "母의 自我概念 및 養育態度와 學童期 子女의 自我概念과의 關係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3, p. 64; 이종승, 오성심,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11권, 1982, p. 11.
5. 민영순, 「발달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78, pp. 202~203
6. E.B. Hurlock, *op. cit.*, p. 223.
7. 劉永美, "兒童의 社會性 및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行動研究: 國民學校 4, 5, 6學年 兒童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8, p. 28.
8. 高銀基, 前揭論文, p. 17.
9. 金美水, "年齡과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不滿性과 關係 變因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2, p. 3.
10. 劉永美, 前揭論文, p. 37.
11. A. Gesell, and F.L. Ilg, *The Child from 5 to 10*,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7, pp. 65, 96, 137, 170, 201, 207.
12. 劉永美, 前揭論文, p. 36; 高銀基, 前揭論文, p. 25; 鄭惠榮, "學齡期 兒童들의 衣生活에 관한 小考," 德成女大 「論文集」, 56, 1977, p. 14.
13. 姜恩淑, "學齡期 兒童의 衣服行爲와 社會階層間的 相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0, p. 57.
14. 朴玉蓮, "兒童의 性格形成과 衣服行動間的 相關研究," 釜山產業大學校 「論文集」, 5, 1984, p. 183.
15. E.B. Hurlock, *op. cit.*, pp. 428, 466.
16. 姜恩淑, 前揭論文, p. 30.
17. M.S. Rya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M.Y.: Halt, Rinehart & Winston, Inc., 1966, pp. 222, 232.
18. 朴貞愛, "學齡期 男·女兒童의 衣服選好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4, p. 42.
19. 朴贊富, 玄溫剛, "兒童의 衣服行動과 人性間的 關係 研究(II)," 仁荷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10, 1984, p. 610.
20. 金榮玉, "所得階層別 學齡期 兒童服의 認識,"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1975, pp. 63, 64.
21. K.H. Read, A. Lucille, "Clothing Help Build Personal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42, 1950, pp. 348~349.
22. 朴玉蓮, 前揭論文, p. 194.
23. 劉永美, 前揭論文, p. 27.

24. J.V. Gilmore, *The Productive Personality*, San-francisco: Albion Publishing Co., 1974, p. 14.
25. H. Bee, *The Developing Child*, N.Y.: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5, p. 323.
26. 金性延, "父母의 養育態도와 어린이의 自我概念 및 學業成績과의 相關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1, pp. 44~45; 朴春心, "父母의 關心이 兒童의 自我概念發達에 미치는 影響," 「대 학가정학회지」, 14(1), 1976, pp. 13~14; 金淑玲, "어머니의 就業 有無에 따른 子女의 人性和 自我概念,"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4, p. 36.
27. M.S. Ryan, *op. cit.*, pp. 82~83.
28. 高銀基, 前揭論文, p. 27.
29. 鄭範謨, 「國民學校用 人性檢査方法 要綱」, 서울 : 코리아 테스팅 센터, 1980, p. 5.
30.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서울 : 修學社, 1986, pp. 180~181.
31. 신혜봉, 前揭論文, p. 51.
32. E.S. Schaefer,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1965, p. 234; 韓宗惠, "父母의 人性 및 教育態도와 學童期 子女의 人生과의 關係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0, p. 4에서 재인용.
33. W.C. Becker, R.S. Krug, "The Parents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A Research Review," *Child Development*, 36, 1965, 韓宗惠, 上揭論文, p. 4에서 재인용.
34. 車載浩, 李芸英, "아들과 딸의 男性·女性性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養育態度," 「韓國心理學會誌」, 2(1), 1974, pp. 30~32.
35. 雲賢仙, 前揭論文, p. 23.
36. P.H. Mussen, J.J. Conger, J.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79, pp. 344~345.
37. 이종승, 오성심, 前揭論文, p. 11.
38. 韓宗惠, 前揭論文, p. 59.
39. 李明姬, "學齡期 兒童의 衣服行動 測定道具 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11(2), 1987, pp. 1~11.
40. 高銀期, 前揭論文, pp. 40~41.
41. 鄭範謨, 「國民學校用 人性檢査」, 서울 : 코리아 테스팅 센터, 1980.
42. 韓宗惠, 前揭論文, p. 25.
43. 李明姬, "性役割을 中心으로 한 學齡期 兒童의 衣服行動과 어머니의 性役割 態度와의 關係," 誠信女子大學校 「研究論文集」, 25, 1987, pp. 209~227.